

강요된 준비

우리 주위에서 느끼게 되는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면에서 글로벌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늘 접하게 되는 TV프로와 뉴스에서 뿐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과 접하여 정보를 입수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시대에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여러 당면과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현 회장단과 여러분과 위원들의 노고를 접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역적 관행과 구태의 경영습성에 안주하려는 주변성을 벗어나 세계 수준(World Class)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위한 노력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머지않아 노력과 헌신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상품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의 제조업 상품이 인정받는 것은 자동차, 일반공작기계, 가전제품 그리고 IT상품 등이며 이는 우리에게 경제적 자신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조선 부분에서도 세계 수주에서 수위를 유지하는 것 등이 든든한 우리의 제조업 분야의 세계진출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7월의 뉴스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자본들이 자기 지분의 결실 이익금을 한국에서 챙겨 돌아가며 더구나 탈세의 허물도 잡을 수가 없이 그 돈의 대부분이 외국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액수이다. 소버린 자산운영팀, 골드먼삭스 그리고 론스타 등의 국제투기 자본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단번에 수천 억 또는 수조 원을 챙기면서도 한국정부에게 탈세혐의를 받지 않는 놀라운 기사를 접하게 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시장 확보와 마켓 프레임스에서 경영기술(Management Skill)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금융부분의 세계화와 경영기술에는 미숙함이 드러나는 현실을 느끼게 되어 실로 안타깝다.

세계화 또는 지구화로 번역되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신화는 여러 분야에서 진보되고 복잡한 산업형태로 몰려오고 있다. 이 글로벌화에 따른 여러 국면의 충격에 우리 건설 분야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모든 것은 예측하고 준비하는 실력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한다.

다음 단계의 글로벌화된 경제의 주요과제는 노동시장이 그 대상이 된다. 이 분야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에 해당되지만 특히 FTA 지역에서 많은 토론과 대책이 발표되고 있음이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로 발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분야 용역의 개방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글로벌화에 따른 준비는 이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강요된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강조점이다.

건설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기준으로도 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분야가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경험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이제 건설업 분야가 글로벌 시장에 적응하고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목 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나라 금융 분야가 준비없이 겪어야 했던 난관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기술용역 분야의 전문 인력이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실력자로 인정받고, 국내에서나 세계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 할 것이다.

여러 전문지 '오피니언'을 통해서 이미 제안된 방향과 방법은 내용이 많이 있다. 다만 해법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어느 정도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외국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에게 맞게 조절하여 적용할 것은 적용하여 실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두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외국 일부 언론에서는 서로의 경직성을 홍보는 것으로 "한국인 보다 경직돼 있다"라는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유연하지만 나태하지 않으며, 세계 수준의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은 우리에게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실천의 열매가 있기까지 꾸준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서 첫째 준비는 단순하지만 국내의 구조기술사 협동문제이다.

외국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건축구조와 토목구조가 한 구조기술사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APEC엔지니어 인증분야에서도 한 자격으로 인증되었다. 이제 두 분야 자격의 토목구조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대화와 협력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서로를 경청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둘째 준비는 세계수준의 역량과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저가 수주의 악순환에서 탈피하고, 제대로 갖추어진 일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일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준비는 우리는 계속 평가 받고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번 임시 총회에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회칙을 추가한 발걸음은 뜻 깊은 것이다. 토론에서 이 규칙이 잘 운영되기에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함께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준비가 넘칠 때, 글로벌 노동시장에 적응하는데 공헌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사라는 목표에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구조기술사의 길을 택하는 재능있는 인재가 모여들게 되고 그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환영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